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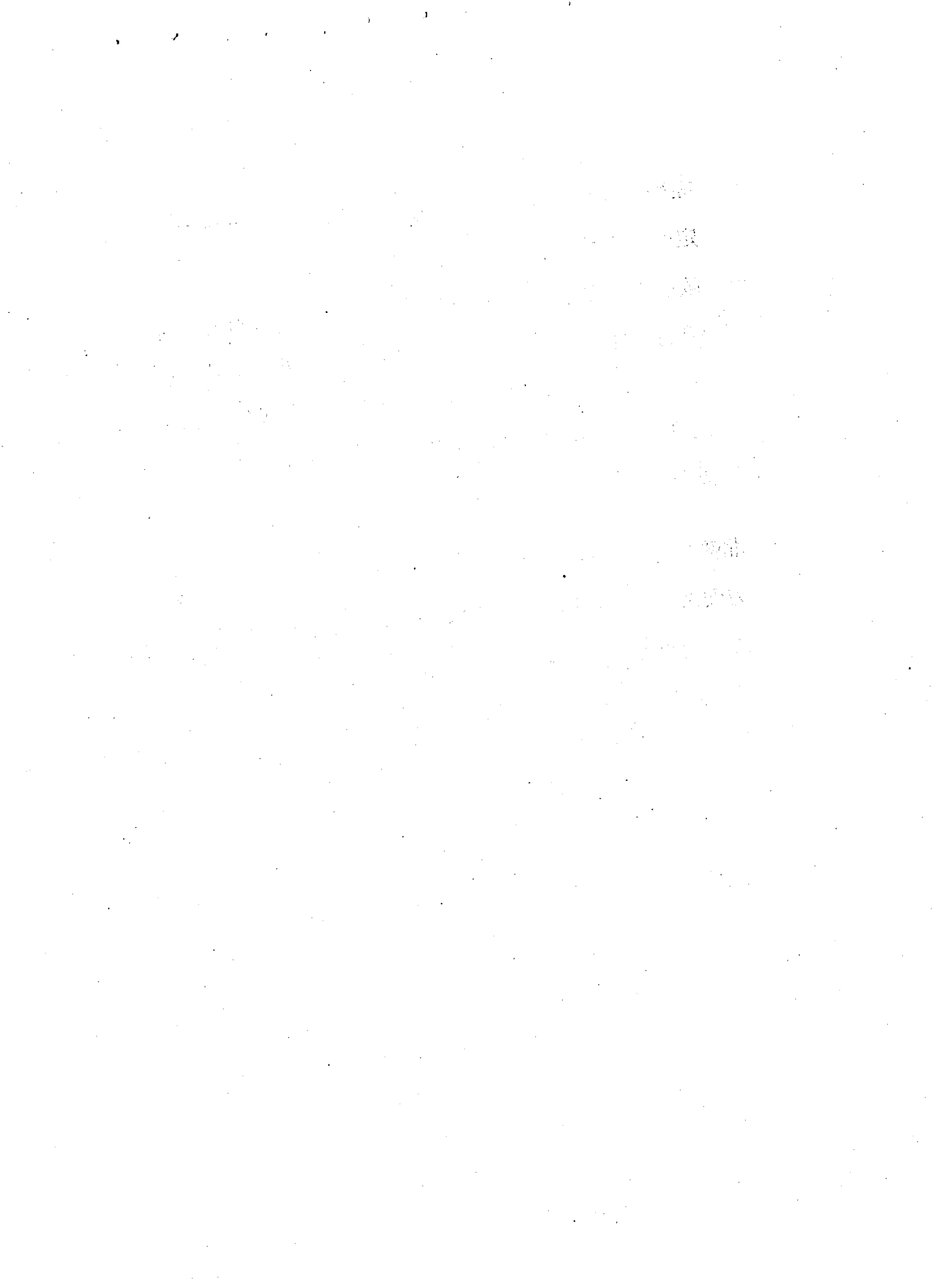
1. 概 況	2
2. 體制維持와 後繼體制 構築努力	4
가. 政治體制와 政治過程	4
나. 後繼體制와 關聯된 權力構造의 改編	10
3. 南北韓體制 競爭力의 強化	18
가. 北韓의 經濟實態와 南北韓 經濟力 隔差	18
나. 經濟難에 對處한 北韓의 努力	22
다. 南北韓 外交競爭	24
4. 對南戰略의 兩面性	27
가. 對南戰略의 基調	27
나. 韓國內部的 統治危機造成 劃策	28
다. “反美 自主化” 戰術 積極化	29
라. 對南提議등 攻勢強化	30
5. 南北韓 關係의 展望	31

1. 概 況

- 南北韓 關係라는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의 基本目標은 對南優位 確保와 民族史的 正統性的 爭奪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北韓은 “革命과 建設”이라는 口號를 내걸고
 - 對內的으로는 住民을 動員하고,
 - 對外的으로는 對北支持 輿論形成 및 支援獲得을 위해 努力해 왔으며,
 - 對南的으로는 僞裝平和攻勢·對南非難 宣傳 煽動 등을 해왔음.
- 이러한 흐름속에서 最近 北韓은 體制維持, 經濟發展이라는 이 두가지의 目標을 追求하는 데 있어 後繼體制 問題와 關聯하여 目標間的 衝突現象을 露呈하고 있음.
 - 즉 政治的 安定(後繼體制 強化)과 經濟發展(社會主義 建設)을 同時에 追求해야만 하나,



- 經濟發展을 위해서 開放을 할 경우 政治的 安定이 깨질 우려가 있는가 하면,
 - 政治的 安定(後繼體制 強化)만을 중시할 경우 體制 競爭面에서 對南劣勢를 挽回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南北間의 民族史的 正統性 競爭에서도 劣勢를 면할 길이 없게 되어 있음.
- 北韓은 이러한 딜렘마를 解決하기 위한 一時的인 方便으로서 對內的인 統制는 여전히 持續하면서 對外 開放姿勢를 과시하는 한편 對南的으로는 柔軟한 姿勢로 對話에 임하고 있는 實情임.



2. 體制維持와 後繼體制 構築努力

가. 政治體制와 政治過程

1) 基本體制

- 北韓의 政治體制는 勞動黨의 指導 밑에 政權機關 또는 各種 政治組織이 運營되는 勞動黨一黨 支配體制임.
- 憲法보다 勞動黨 規約이 優先되며, 黨의 總秘書(金日成)가 모든 政治權力을 掌握하고 있음. (表-1)

2) 政策의 決定과 執行過程

- 北韓의 모든 主要政策은 金日成과 黨中央委員會 政治局(17人)에 의해 決定되며 黨大會 또는 最高人民會議은 이러한 決定을 支持, 추인하는 形式的 機關에 不過함. (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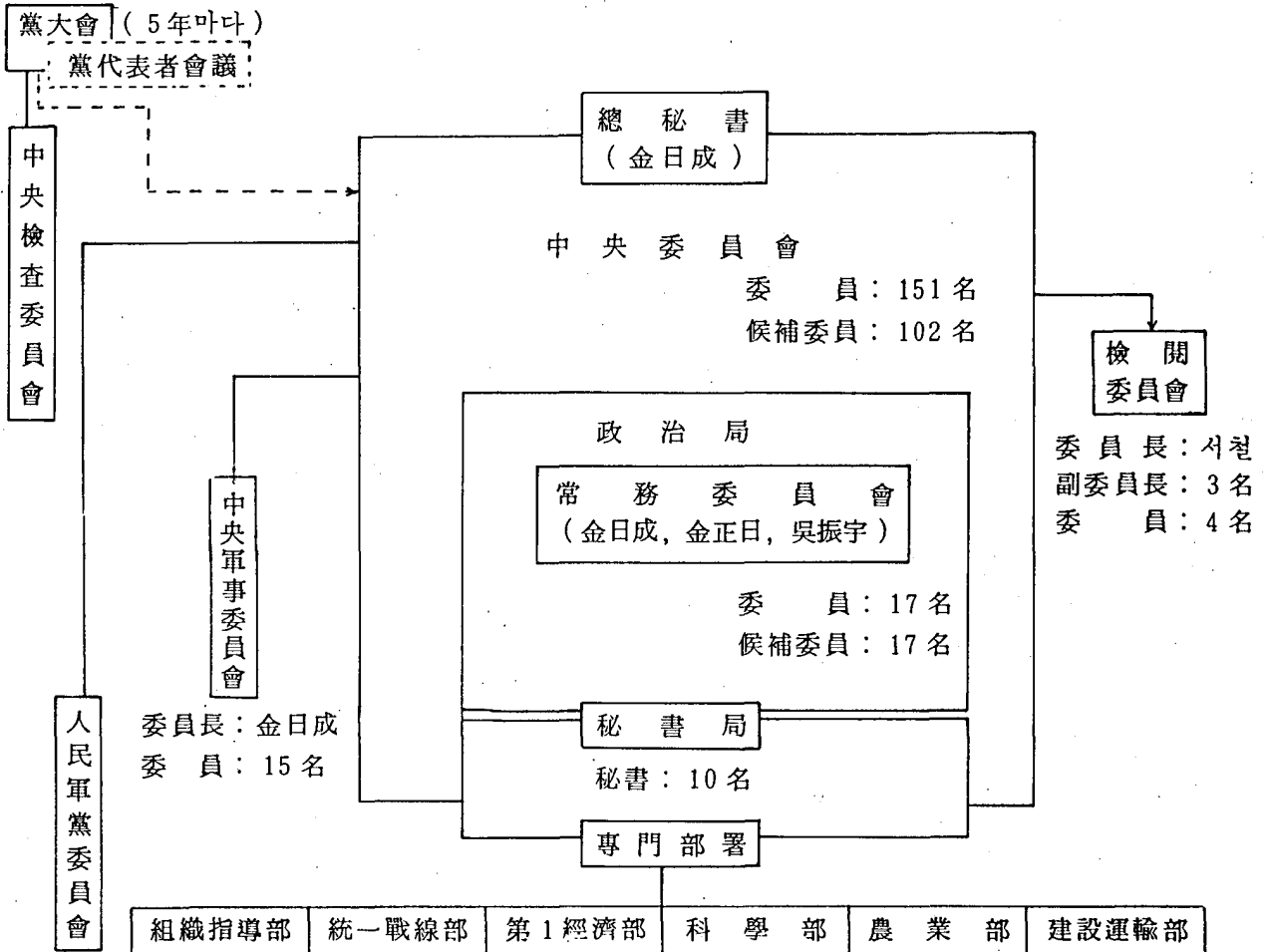


- 決定된 政策은 黨秘書局의 指導를 받아 政權機關에 의해 遂行되며 모든 下部組織과 人民은 이러한 決定에 一方的으로 順從할 것이 強要됨. (表 - 3)
- 最高人民會議은 憲法上 最高主權機關으로 規定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勞動黨의 決定을 支持·追認하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음. (表 - 4)
- 司法機關으로는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가 있으나 政權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와 統制를 받고 있음.
- 勞動黨 以外の 政黨으로서는 朝鮮社會民主黨 ('81.1.28 創立), 天道教靑友黨 ('46.2.8 創立)이 있으나 勞動黨의 指導와 統制를 받는 “朝鮮勞動黨의 友黨” 일 뿐임.
- 朝鮮社會民主黨은 朝鮮民主黨 ('45.11.3 創立)을 改稱한 것으로서, 名稱을 變更한 理由는 西歐陣營의 社會黨 政權과의 連帶를 強化하려는 目的이었음.



(表-2)

勞動黨中央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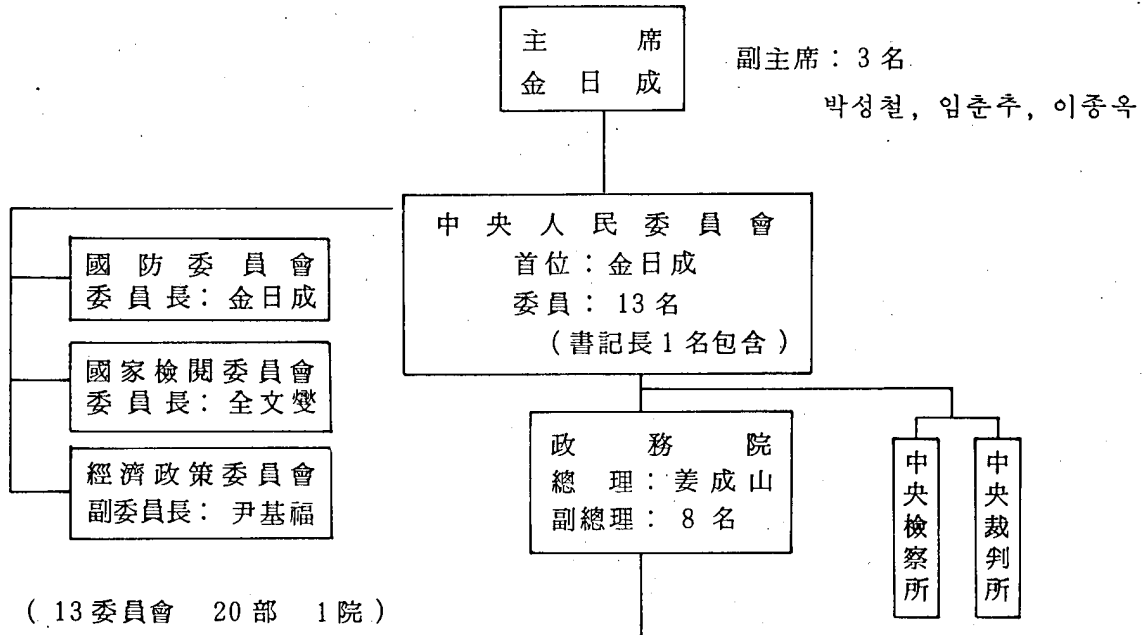
組織指導部	統一戰線部	第1經濟部	科學部	農業部	建設運輸部
宣傳煽動部	連絡部	第2經濟部	教育部	機械工業部	勤勞團體部
國際部	作戰部	第3經濟部	文化藝術部	計劃財政部	行政部
軍事部	總務部	財政經理部	青少年部	化學部	保健部
對外連絡部					

* 黨組織의 核心機構는 政治局이며 政治局의 核心은 常務委員會임.
 '80.10. 6次黨大會時 常務委員은 5名이었으나 김일의 死亡과 이종욱의 탈락으로 現在는 3名임. 吳振宇가 金正日 擁護勢力中 軍部代表者라는 點을 勘案해보면, 勞動黨은 金日成·金正日父子가 完全 掌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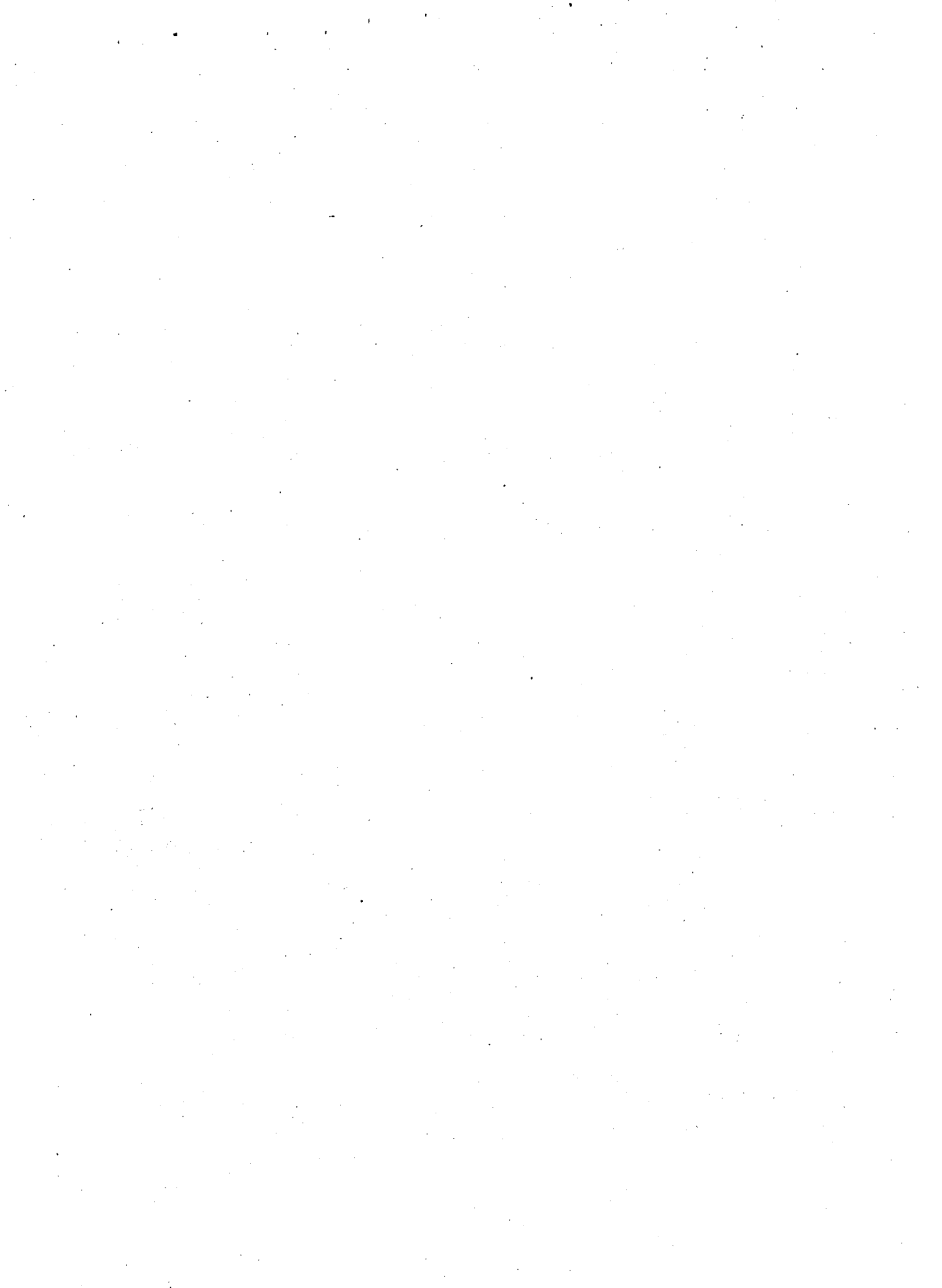
(表-3)

中央政權機關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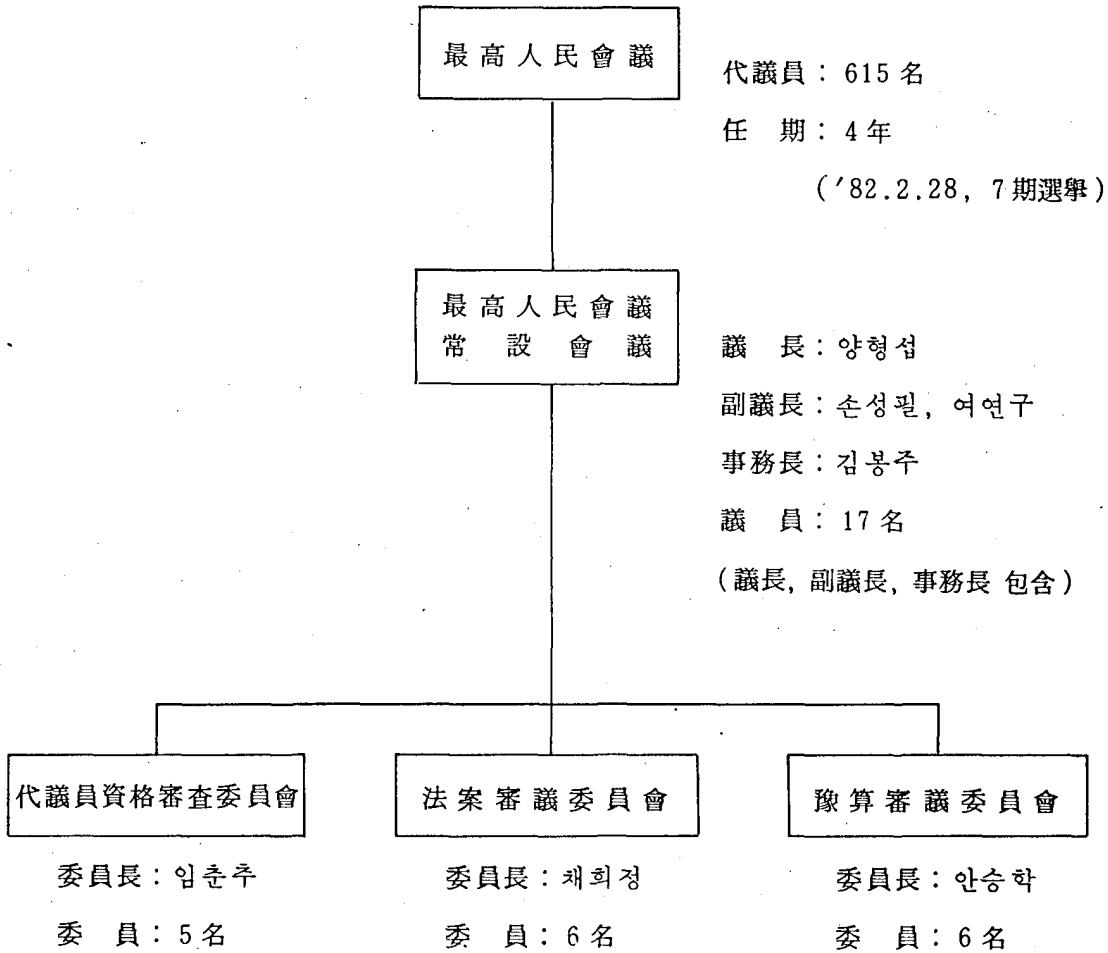
國家計劃委員會	輕工業委員會	外交部	貿易部	保健部
採取工業委員會	人民奉仕委員會	鑛業部	電力工業部	財政部
機械工業委員會	國家科學技術委員會	石炭工業部	遞信部	陸·海運部
貿易委員會	國家建設委員會	建材工業部	資源開發部	資材供給部
水產委員會	教育委員會	林業部	金屬工業部	建設部
農業委員會	國土 및 都市管理委員會	科學院	勞動行政部	鐵道部
交通委員會		文化藝術部	對外經濟事業部	化學工業部

- * 大部分의 副總理는 政務院의 委員長, 部長을 檢査하고 있음. 國家計劃委員會, 貿易委員會, 水產委員會, 農業委員會, 輕工業委員會, 外交部 등이 그것임. 이로써 北韓의 政策 重點方向이 外交와 經濟問題라는 것이 유추됨.
- * 政務院은 黨政策의 實務的 執行機關일뿐이며 外交部, 文化藝術部, 保健部, 教育委員會를 제외하면 전부 經濟部署임.
- * 司法機關은 獨立되어 있지않고 黨과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하에 있음.



(表-4)

最高人民會議機構圖



* 最高人民會 代議員은 人口 3萬名當 1名 選出.

※ 單一候補에 對한 贊反投票로 選出됨.



나. 後繼體制와 關聯된 權力構造의 改編

1) 金正日의 登場

- 1972年12月 勞動黨 第5期 6次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의 後繼者로 隱密히 決定된 以後, 核心 權力의 中心으로 浮上하기 시작
- 이어서 1973年9月(黨5期 7次全員會議) 黨 組織 및 宣傳煽動擔當 秘書로 選出되었고
- '80年10月에는 金日成의 後繼者로 公式化되면서 黨政治局 常務委員, 秘書, 中央軍事委員으로 選出되어 더욱 權力基盤을 다져왔음.
- 또한 '83年4月 最高人民會議 第7期 2次會議 以後 核心權力의 第2人者로 位置를 完全히 確保함.(黨政治局 常務委員, 黨秘書, 中央軍事委員으로서 金日成에 이어 第2人者의 位置 確保)

2) 金正日 後繼體制 強化努力

- 對內的으로 指導者의 이미지를 構築하기 위해 金正日是 北韓의 全般的인 施政權을 擴大 強化해 오고 있는 바, 當面한 北韓의 主要事業 (4大自然改造事業, 5個地區建設事業, 採取工業, 金屬工業, 鐵道, 運輸事業 등)을 主導하고 現地 指導하며 重要集會에 參席하고 軍部隊를 視察하는 등 金日成의 代理役割을 통해 指導者로서의 資質을 浮刻시키고 있음.

一 4大自然改造事業 :

- 墾拓地 30萬町步 開墾
- 20萬町步 새땅찾기
- 南浦閘門 建設
- 태천發電所 建設

一 5個地區建設事業 : 순천, 安州, 清津, 南浦, 咸興 등 5個地區 建設.



- 또한, 對外的으로는 지난 '85年6月에 中共을 訪問하였고, 年初에는 中·蘇 指導者들(胡耀邦과 그로미코)과 '85年度 新年年賀狀을 交換하였으며, 蘇聯共產黨 書記長이 지난 4月 北韓外交部長(金永南)의 蘇聯訪問時, 金正日에 대한 人事 傳達를 付託하는 등 金正日 後繼指導體制에 대한 中·蘇의 立場도 肯定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金正日이 後繼者로 公式 浮上하면서 北韓의 權力核心部에는 新進人物들을 大舉 登場시켰으며(表-5), 金正日의 勢力基盤強化過程에서 金英柱(金日成의 實弟, 政務院 副總理), 이용무(人民軍 總政治局長), 김병하(國家保衛部長) 등의 主要人物들이 除去 또는 潛跡된 반면에 特別히 浮上되고 있는 人物은(表-6)과 같은데, “專” “紅”의 支持勢力을 同時에 掌握하고 있는 것이 特徵임.

- 그리고 金正日是 金日成과 北韓의 權力構造에서 거의 對等한 水準으로 格上되어 있는데, 金正日에 대한 呼稱만 보더라도, “黨中央”, “嚮導星”, “어버이”, “英雄”, “最高司令官”, “民族의 太陽” 등의 呼稱이 다르고 있으며, 金正일에 관한 記念物建立, 金正일의 治蹟讚揚, 심지어는 金正일의 生母(金貞淑)에 대한 讚揚까지 나오고 있는 것임.

(表一五) 黨政治局 및 秘書局的 新進人物 登場實態

('85.6 現在)

	政 治 局	秘 書 局	中 央 委 員 會
現 員	34 名	10 名	253 名
新 進 人 物	28 名	8 名	144 名
新 進 人 物 構 成 比	82.3 %	80 %	57 %

- * 80年10月 勞動黨 6次大會를 기점으로 黨員數가 大幅 增大됨. (從來 200萬名에서 300萬名으로)
- * 이는 金正日 權力基盤 強化와 關聯하여 金正일의 親衛隊인 “3大革命小組” 出身이 大學 入黨함과 同時에 이들이 차츰 權力的 核心에 浮刻되기 시작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表-6) 金正日體制 構築過程에서 특별히 浮上된 인물

('85年6月 現在)

政治 · 外交	임춘추 (副主席), 김영남 (外交部長), 허담 (秘書), 최영림 (第1副總理), 김중린 (黨秘書)
軍 部	오진우 (人民武力部長), 오극렬 (人民軍 總參謀長), 백학림 (人民武力部 副部長), 김두남 (黨軍事部長), 김강환 (黨部長兼 人民軍副總參謀長)
經濟分野	강성산 (總理), 서운석 (平壤市 黨責任秘書), 조세웅 (清津市 黨責任秘書), 홍성룡 (副總理), 김복신 (副總理), 박남기 (黨秘書), 채희정 (黨秘書), 안승학 (黨秘書)
社 會 團 體	허정숙 (黨秘書)

- 理念, 軍部派 → 體制維持
- 專門派 (經濟 · 外交) → 住民生活 向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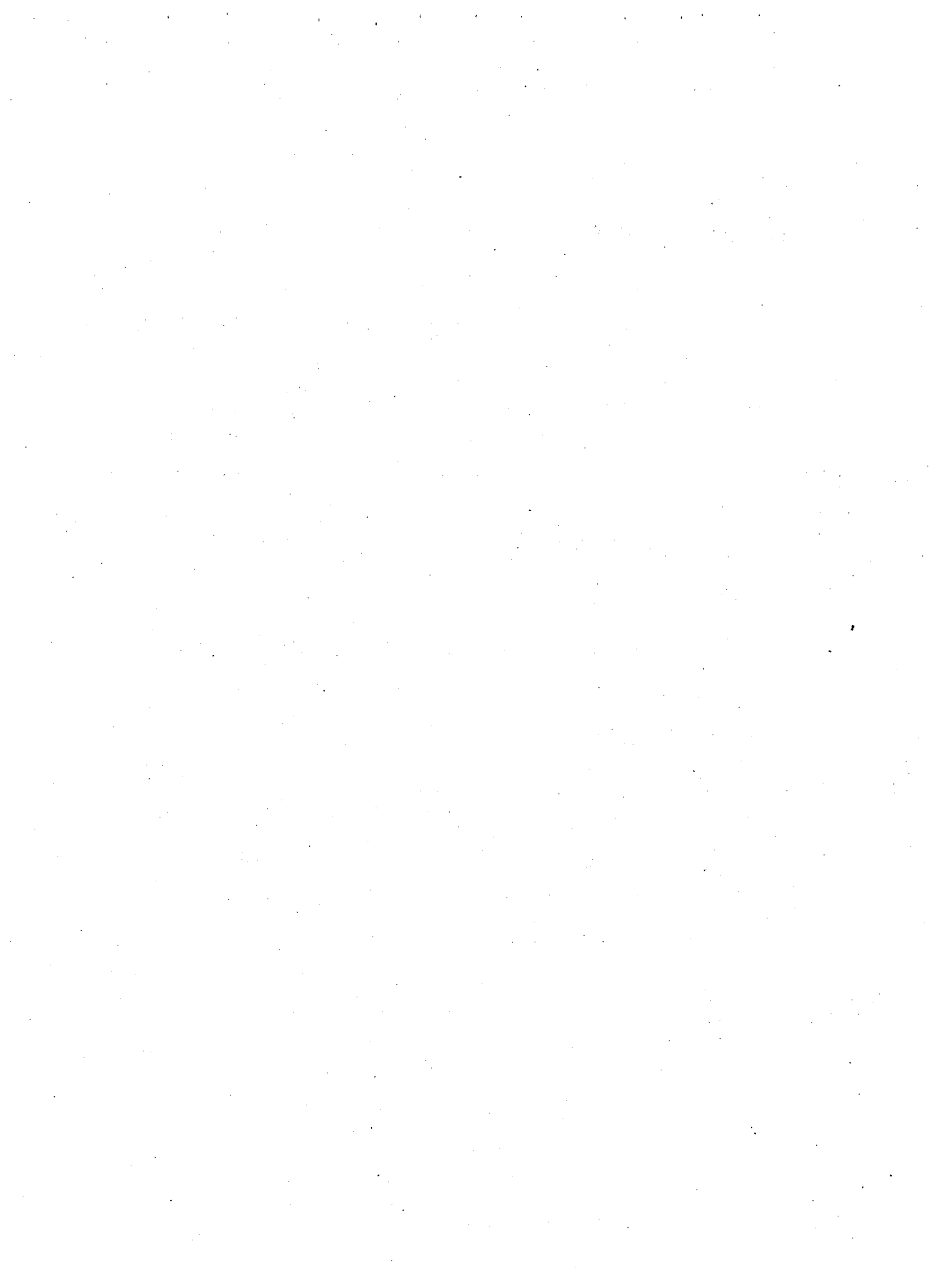
3) 金正日體制下에서의 政策方向 展望

權力承繼上の 問題點

- 指導者로서의 政治的 象徴操作과 權力的 正統性 強化基盤 未洽.
 - 金日成世代가 지닌 革命經歷 缺如
 - 50 ~ 60代 幹部들이 지니고 있는 後繼世代로 서의 治積 未洽
- 世襲後繼體制 構築에 대한 反對勢力 尙存
 - 3大革命小組에 밀려난 黨幹部
 - 特別獨裁對象區域 (8個, 11萬名) 收容
- 自身の 統治를 正當化시키기 위해서는 未來에 對한 비전을 積極的으로 提示할 必要
 - 그러나, 住民들의 生活向上에 對한 期待感을 充足시키지 못할 경우, 體制에 對한 不滿을 惹起할 危險性 內包

權力承繼의 現段階

- 金正日의 對內外的 政治活動과 北韓 報道媒體의 金正日에 대한 報道內容등으로 미루어 보아 金正日에의 權力承繼가 임박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음.
 - '85.4.25 허담은 日本 아사히新聞과의 會見에서 金正日이 “黨과 國家의 '首位'의 자리에 推戴되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首位'란 말은 '首領'(金日成)의 다음 位置라는 意味로 使用된 것으로 보임.
- 絶對權力者가 生存時에 그의 權力과 地位를 後繼者에게 移讓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따라서 金日成 生存時에는 權力的 完全한 移讓은 不可能할 것이나
- 우선 金正日에게 主席의 자리는 移讓할 수 있을 것이며, 그 時期는 第7期 最高人民會議 任期가 滿了되고 第8期 最高人民會議가 새로 構成되는 來年이 될 可能性이 높음.
 - 그러나 北韓이 現在 解放 40年과 關聯 代代적인 政治行事を 準備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빠르면 今年中에 이루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음.



政策方向 (展望)

- 基本路線 : 基本的으로 金日成 主體思想과 革命路線을 繼承해 나가되, 消費生活과 關聯한 住民의 不滿解消政策을 併行
- 對內政策 : 金正日 偶像化策動 強化, 限定된 開放經濟體制 및 住民生活向上 政策推進
政權基盤 構築을 위한 反對勢力 除去와 住民統制 強化
- 對外政策 : 中·蘇와 從前의 基本的 紐帶關係 계속, 美·日등 西方國家와의 關係改善에 注力 (先進技術 및 資本導入).
- 對南政策 : 對南革命路線의 일부 修正 혹은 強, 穩兩面戰略 展開의 可能性 (對南政策의 幅이 넓어짐).

3. 南北韓體制 競爭力의 強化

가. 北韓의 經濟實態와 南北韓 經濟力 隔差

- 國內需要의 모든 物資를 自體內에서 解決하려는 北韓은 소위 “自力更生” 原則과, 이에 따른 硬直·閉鎖된 經濟體制, 軍需産業과 關聯된 重工業 優先政策을 固守함으로써 産業間의 不均衡을 深化시켰고,
- 또한 硬直된 統制經濟體制的 逆機能과 生産施設의 老朽化, 技術革新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지난 70年代初부터 일기 시작한 慢性的이고 持續的인 生産沈滯 現狀은 北韓經濟에 심각한 難局(5大經濟難: 食糧難, 原料 및 燃料不足, 輸送設備 不備, 外債難, 技術落後)을 가져오게 되었음.
- 특히 지난 2次7個年 經濟計劃('78~'84)의 全面的 失敗(表-7 參照)로 北韓은 '85年度 豫算編成을 66年以後 最大의 緊縮豫算으로 編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閉鎖, 硬直된 統制經濟方式의 逆機能이 長期間 累積됨에 따라 특히 住民들의 消費生活이 크게 打擊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住民들의 不平不滿은 反體制的·反政權的 樣相으로까지 擴大될 可能性을 보인 바 있음.

- 77年度 용양鑛山 食糧暴動 事件

- 82年度 淸津市 일원의 勞農赤衛隊·人民軍間 有血衝突事件

- 82年度 新義州市 地方黨員과 3大革命小組員 間的 集團衝突事件

○ 지난 45年 解放當時만 하더라도 보다 有利的한 經濟與件에서 出發했던 北韓이 지난 70年代初 부터는 韓國보다 劣勢에 놓이기 시작, 最近들어서는 石炭, 鐵鑛石 등 一部 鑛産物을 除外하고는 모든 經濟指標에서 韓國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 隔差는 갈수록 더욱 深化되고 있는 趨勢임. (表-8)



(表-7)

2次7個年計劃 生産目標 遂行實績

區 分	單 位	計 劃 目 標	遂 行 實 績 評 價	遂 行 率 (%)
電 力	億 KWH	560- 600	250	41.7
鋼 鐵	萬 屯	740- 800	450	56.0
트 렉 타	萬 臺	4.5	2	44.4
工 作 機 械	萬 臺	5	3	60.0
化 學 肥 料	萬 屯	500	320	64.0
시 멘 트	萬 屯	1,200-1,300	905	69.6
織 物	億 m	8	6	75.0
石 炭	萬 屯	7,000-8,000	3,580	44.8
穀物(조곡)	萬 屯	1,000	640	64.0
水 産 物	萬 屯	350	210	60.0

* 北韓이 提起했던 第2次 7個年計劃의 平均 目標達成率은 55% 임.

* 第2次 7個年 計劃 失敗原因

- 當初 計劃目標가 과다하게 策定되었거나 非現實的으로 策定.
(電力 3倍, 石炭 2.8倍, 有色金屬 6.7倍, 鋼鐵 3倍, 化學肥料 3.8倍 등)
- 中·蘇의 支援約束下에 樹立되었으나 約束履行 不振.
- 生産設備 老朽, 資本調達 限界등 生産性的 落後.
- 資本의 非效率的 運營.

(表-8)

南北韓 經濟力 比較

(1983 年末 基準)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比 較 (韓國：北韓)
人口(年央人口)	萬名	3,995	1,890	2.1 : 1
面積	千 km^2	99	122	1 : 1.2
GNP	億弗	753	145	5.2 : 1
1人當 GNP	弗	1,884	765	2.5 : 1
實質成長率	%	9.5	4.3	-
財政規模 (一般會計 決算基準)	億弗 (億 ₩)	131 (10兆1,807)	110	1.2 : 1
對GNP比	%	17.4	76.2	-
軍事費	億弗	43.3	34.0	1.3 : 1
對GNP比	%	5.8	23.5	-
對財政規模比	%	33.0	30.9	-
國民1人當 軍事費負擔	弗	108	180	1 : 1.7
貿易總額(通關基準)	億弗	506.3	29.3	17 : 1
輸 出	億弗	244.4	13.8	18 : 1
輸 入	億弗	261.9	15.5	17 : 1

* 過多한 軍事費 負擔으로 인해 經濟全般에 莫大한 損失 招來.

* 對外經濟協力 不振으로 經濟沈滯의 加速化.



나. 經濟難에 對處한 北韓의 努力

1) 蘇聯·中共등 共產諸國의 經濟支援 要請

- 金日成은 84年6月 蘇聯 및 東歐 7個國을 巡訪, 다시 같은 해 11月 中共을 訪問, 經濟支援을 要請하였으나, 援助獲得에 失敗하였음.
- 또한 강성산總理가 84年9月 中共을 訪問하고 援助를 要請했으나 成果없었음.
 - * 中·蘇를 비롯한 共產圈 經濟力이 對北支援 餘力不足.
 - * 北韓의 對中·蘇 外交路線에 대한 不滿등으로 支援回避.

2) 合營法 制定, 對西方 資本 및 技術導入, 門戶開放

- '84.9.8 合營法 制定 公布.
- 이는 美國·日本등 西方國家의 資本과 技術導入을 위한 法的인 裝置를 마련한 것으로서, 中共이 推進中인 “中外合作法” 등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法案을 模倣한 것으로 보임.

3) 南北經濟會談에 呼應, 海外의 資本, 技術誘致를 위한 霧圍氣 造成에 努力

- 南北經濟會談을 통해 經濟實利를 追求하려는 意思도 있었으나, 이보다는 韓半島의 緊張緩和 印象을 內外에 宣傳, 西方과의 經濟協力을 誘導하려는 意圖임.

4) 外貨獲得 爲해 輸出增大에 力點

- 北韓은 84.1 最高人民會議에서 對外經濟協力を 特別히 強調한 바 있으며,
- '84.10月부터는 北韓 各地域 輸出增大 促求 關起大會, 外貨벌이運動 強化督勵, 外貨商店(31個) 開設등, 外貨獲得에 力點을 두고 있음.

5) 體制의 安定維持와 住民宣撫의 必要性에 따라 住民生活의 向上을 위한 政策的 關心이 賦與되기 시작함.

- 특히, 金正日 後繼體制 登場 움직임과 關聯하여 北韓社會는 頭髮·服飾·신발 등에서 變化를 보이고 있는 한편, 北韓當局은 住民消費生活 水準의 向上에 關心을 갖고,

- 輕工業革命, 人民奉仕革命을 계속 強調하면서,
- 地方行政機關을 督勵, 消費品 生産增大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 觀光業, 消費産業의 發展과 家內作業班 및 職場作業班組織(總 16,400 個)의 擴大를 꾀하면서,
- 住民의 衣·食·住등 基本生活을 위한 便宜·奉仕網을 擴充하고 있음.

다. 南北韓 外交競爭

- 最近 北韓은 프랑스駐在 通商代表部를 一般代表部로 昇格시키는 데 成功('84.10)한 以後, 黨政 高位人物들을 動員한 對西方 訪問外交를 強化, 海外資本·技術誘致를 위한 霧圍氣造成을 企圖하고 있음.
 - '84年 12月, 黨秘書 황장엽이 西獨, 오스트리아 訪問.
 - '85年 2月, 最高人民會議 議長 양형섭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화란 巡訪

- 北韓은 이와 같은 일련의 浸透外交 強化를 통해,
 - 西獨과는 200萬屯 規模(약 7,200萬弗)의 시멘트工場 設備購入 契約을 締結하였고('84.12)
 - 프랑스 “베르나르” 建設會社와 46層 規模의 合作호텔 建設에 合意. (1億\$ 相當), 平壤에서 起工式을 가진 바 있음. ('85.2.27).
 - 특히 지난 3月4日에는 北韓 通商代表團(團長: 運덕商社 社長 김중현)이 濠洲를 訪問, 濠洲와의 經濟協力을 통한 關係改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最近 北韓의 이와같은 對西方 浸透 外交強化는 西方資本과 技術誘致뿐만 아니라, 西方國家와의 關係改善을 통해 南北韓 外交競爭에서 優位를 確保함으로써, 赤化統一을 위한 3大革命 力量중의 하나인 國際的 支援力量을 確保해 나가겠다는 戰略도 內包되어 있음.



(表 - 9)

南北韓 修交現況

○ 總修交國數

(1985.6 現在)

區 分	韓 國	北 韓
單 獨 修 交 國	56	35
同 時 修 交 國	66	66
總 計	122	101

(常駐代表部 - 韓國 84 : 北韓 73)

○ 地域別 修交國數

地域 區分	아시아	中 東	아프리카	大洋洲	歐 洲	美 洲	合 計
韓 國	14	14	31	12	20	31	122
北 韓	16	10	41	5	18	11	101
共 同	9	6	27	6	9	9	66

* 現在 南北韓의 修交國家數를 地域別로 보면, 全般的으로 韓國側의 優勢에 있으나, 第3世界 그룹인 非同盟國家들이 主流를 이루는 아시아·아프리카 地域에서만은 韓國側의 劣勢로 나타나 있음.

4. 對南戰略의 兩面性

가. 對南戰略의 基調

- 北韓은 그들의 窮極的 目標을 '全韓半島 共產化 實現'에 두고
- 이를 위한 可能的 統一方途로서
 - 소위 '平和的 方途', 즉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고, 現政府를 顛覆한 후 容共 '人民政權'을 樹立하여 北韓과의 合作을 통해 共產化 統一한다는 方式의 소위 '南朝鮮革命' 方案과
 - '非平和的 方途' 즉 決定的 時期가 造成되면 全面 武力南侵을 敢行한다는 方式등 2가지 方途를 同時에 推進하고 있음.
- 이와 같은 赤化統一 目標을 達成키 위한 戰略 基調로서 北韓은 이른바 '3大革命 力量' (北韓革命基地 力量, 南韓內 革命力量, 國際的 支援力量)의 強化路線을 採擇('64.2, 黨中央委 4期 8次 全員會議에서 黨 方針으로 確定)하고 이에 의한 赤化統一 與件造成을 위해 情勢狀況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의 統一方案을 選擇적으로 提示하고 있음.



- 따라서 어떠한 形態의 統一方案일지라도, 窮極的으로 共產化革命 方針의 일환일 뿐이며, 다만 때와 場所에 따라 形態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나. 韓國內部の 統治危機 造成 劃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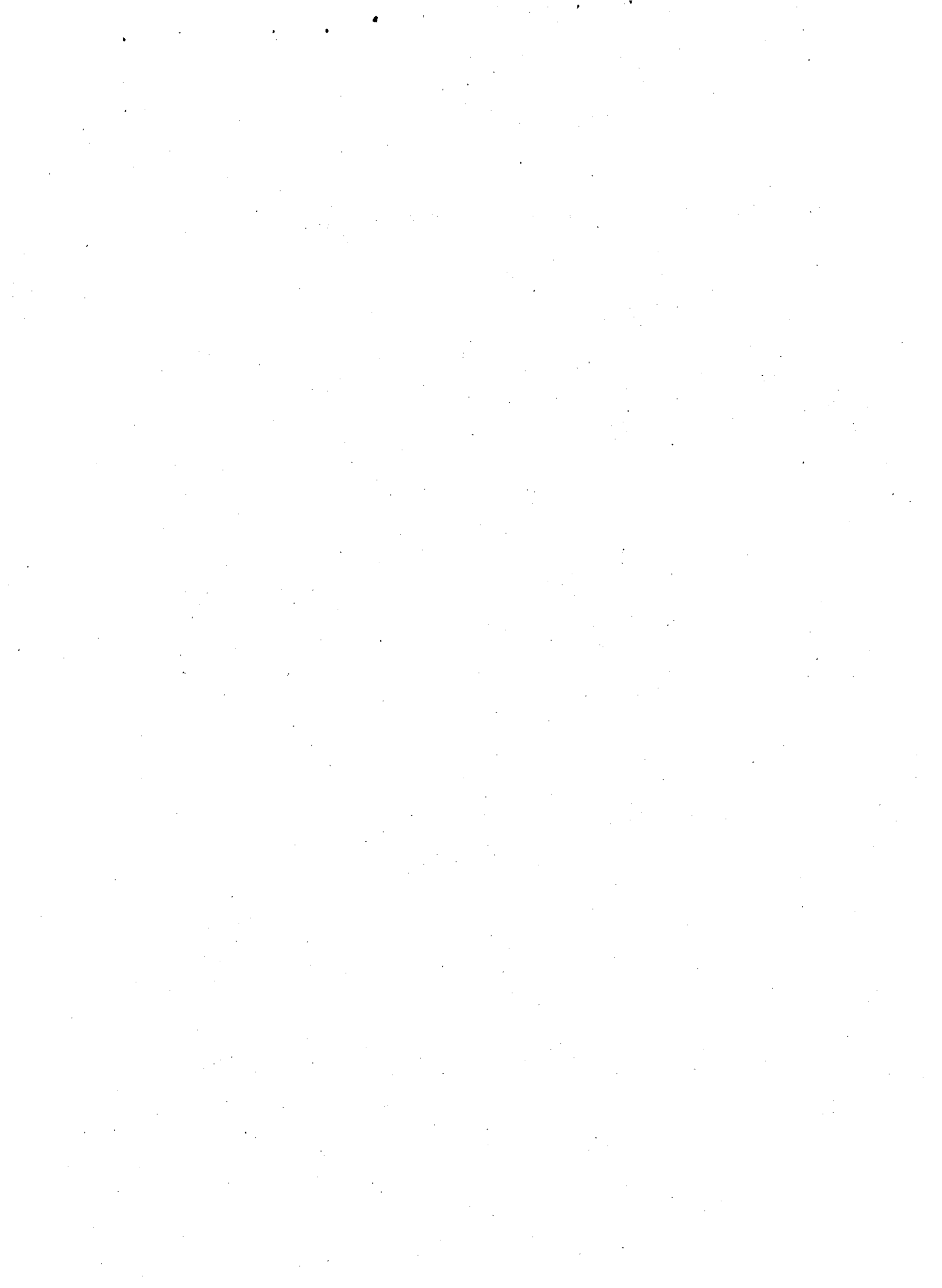
- 第5共和國 出帆以後 開放과 自律을 促進시키면서 大規模 國際行事を 연이어 開催하는 등 國力이 크게 伸張되자, 北韓은 南北韓間의 國力隔差에 制動을 가하고 동시에 革命情勢를 造成하기 위해서는 現統治體制에 대한 危害策略이 철실하다는 發想에서
 - '82年2月 不純僑胞와 國際테러 組織을 動員, 大統領閣下에 대한 '카나다據點 危害 陰謀事件'을 企圖한 데 이어,
 - '83年10月 '버마暗殺 爆發事件'을 恣行했으나, 오히려 國際테러集團으로서의 聲譽만 드러나게 되었음.

라. 對南提議 등 攻勢強化

- 한편 北韓은 '84年1月 “3者會談”을 提起한 이래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 등에 呼應하는 한편 南北國會會談을 提議하는 등 多角的인 對話攻勢를 展開하고 있음.
- 그러나 동시에 北韓은 '非平和的 方途'의 實現可能性에 對備하여 內外 매스콤에 報道된 바와 같이 軍部隊를 前進 配置시켜 武力赤化를 위한 挑發의 徵候를 보이는 등 兩面作戰을 展開하고 있음.

5. 南北韓 關係의 展望

- 北韓의 對外 經濟協力試圖 및 南北韓間의 多角的 對話 通路 構築努力등, 最近 北韓側이 보여주고 있는 對內外的 柔軟姿勢는 그들의 革命戰略인 合作과 일시적 共存戰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즉, 對內的으로는 南北韓體制 競爭에서 北側이 硬直된 閉鎖政策 持續에 따른 劣勢와 限界가 露呈되어 있고,
- 對外的으로는 開放化 趨勢에 있는 國際舞臺에서 經濟, 外交的 孤立脫皮가 不可避한 實情에서,
- 일단 平和攻勢를 통해 그들의 難局을 打開하면서, 소위 “韓國의 革命力量”을 點檢해 보고자 하는 것임.



- 특히 金正日 登場以後 住民福祉施策을 비롯한 輕工業分野에 대한 政策的 關心增大와 함께 住民生活의 部分的 變化조짐은 從來 그들이 緊張一邊倒 政策을 追求해 왔다는 점과 比較해 볼 때 이것은 北韓內部的 社會的 變化가 部分的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는 徵候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從前의 革命이데올로기나 基本的인 對南 共產化戰略을 拋棄하거나 修正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등이 開催되고 있는 동안에도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收主張등 從來의 立場을 固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國會會談의 開催를 내놓으면서 南北不可侵宣言 問題등을 들고 나온 것을 보더라도 北韓의 底意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임.
- 이렇게 볼 때, 最近 北韓의 對南柔軟姿勢와 對內外 平和이미지 부각의 努力은,



- 內的으로는 後繼體제의 安定構築 (특히, 金正日統治下의 住民生活 向上이라는 業績浮刻을 통해) 을 위한 對內 政策緩和 (=變化) 必要性과,
 - 外的으로는 合營法 制定以後 西方資本 導入을 비롯한 對美·日 關係改善의 必要性에서 緣由한 것 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南北韓關係가 相當한 水準에 이르기까지 改善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狀況이나,
- 前述한 바와 같은 그들의 對內外的 現實狀況에 입각한 戰術的 變化, 즉 從前의 硬直, 強硬路線의 일부 緩和 必要性이 當분간 增大될 것으로 評價되는 바,
 - 이를 能動的으로 活用하여 南北韓關係를 改善해 나가기 위한 積極的이고도 신중한 對應策이 必要하다고 判斷됨.

